제164회 인문학연구소 학술집담회
2024. 12. 03.(화) 16시 30분
인문대 세미나실(2416)

한국시 한 편에 대한 단상

김번(한림대 영문과)

1. 왜 “스승의 사랑법”인가?

“스승의 사랑법”을 택한 것은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의 허방 짚은 경험과 관련된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응,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시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었다. 워낙 짧은 시라 두세 번을 더 찬찬히 읽었는데도 의구심은 그대로인 채 ‘헐!’만 남았다. 그것으로 그만둘까 하다가 얼마 안 되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깝기도 하고 어떤 매듭지음도 없이 끝내는 것이 찜찜했다.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찾아봤다. 그랬는데, ‘헐!’이 ‘아!’로 바뀌었다. 그 다음은 ‘내가 뭘 못 본 거지?’였다. 내가 이 시와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쳐다본 까닭을 찾았다. 처음엔 시시한 글 토막에 불과했던 것을 시로 들어 올리는 것, 즉 ‘시적인 것’을 찾았다. 그리고 그 ‘시적인 것’은 어떻게 포착되며 그 포착의 언어적·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오늘의 발표는 “스승의 사랑법”을 읽고 생각해 간 그 내력을 말하려는 것이다.

2. 시시비비(詩詩非非)

시의 내용은 간단하다. 술자리에서 제자를 만난 스승이 술병 난 제자에게 타이름반 야단 반으로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해 놓고선 술 한잔을 권하는 것이다. 내가 이 시와 눈을 맞추지 못했던 것은 이런 내용에만 눈을 판 때문이었고, 보지 못했던 것은 그 ‘말하는 방식’이었다. 문학에서 항용 말하는 대로, 말하는 바(what is said)의 뜻이 내용이라면 말하는 방식(how it is said)은 형식에 해당하며, 하나의

글은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詩)와 비시(非詩)로 갈릴 수 있다. 과연, 이 시에서 스승이 말하는 방식은 특이하지 않은가? 거기에는 (경북 상주로 추정되는)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이 선명하게 배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억양을 살리기 위해 스승의 말이 가능한 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표기된 글은 웬만한 문학작품에서도 보기가 드물 것이다.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특히 마지막의 '바다라'가 그렇다. 이렇듯, 이 시는 스승의 한 토막 말을 문자언어로 옮긴 것, 전사(轉寫)한 것에 불과하다. 햐, 남의 말 한 토막을 그냥 문자언어로 옮겼을 뿐인데 그게 시가 되다니! 이 마법, 이 요지경을 어떻게 풀이할꼬?

3. 말하는 방식과 번역의 문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걸음은 이 시를 표준어 규정과 맞춤법 규정에 맞게 다시 써 보고 그것을 원문과 비교·대조해 보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시의 원문을 '아래아 한글'에서 치면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양자 간의 이런 차이에서 '시적인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먼저 규범의 파괴로, 혹은 규범으로부터의 일탈로 나타난다. 왜 시인은 스승의 말을 최대한 소리 나는 대로 적고자 했을까?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 소리의 결과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소릿결에 스승의 마음결이 곡진하게 배어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그것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테다. 소쉬르 왈, 낱말은 소리와 뜻의 결합체이며 그 결합 관계는 자의적(恣意的, arbitrary)인 것이다. 그렇다면, 말에는 뜻의 길이 있고 소리의 길이 있는바, 시인은 전자보다 후자를 귀하게 여겨 후자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뜻의 길을 따르는 것이 산문이라면, 시는 소리의 길을 따르는 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은 소리의 어울림을 우선하여 낱말들을 이어가고 조직하는 걸 즐기는 족속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의 하고많은 다양성을 생각해 보자. 내가 말하는 방식은 강의실, 식당, 술집, 그냥 집 등에서 다 다르다. 어휘의 층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억양과 어조도 다를 것이다. 가령, 지금 나는 내 나름의 상황 규정에 따라 이 발제문을 학술적 성격이 약한 informal한 것으로 여겨 글보다는 말에 가까운 느낌으로 쓰고 있다. 대상에 따라서도 말하는 방식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식과 내가 술자리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 말하는 방식은 크게 다를 것이다.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이 시 속의 스승과 엇비슷하게 확연한 경상도 억양으로 말하고 경상도 사투리도 쓸 것이다.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언어 정체성인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과 고향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언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 한국어 속에서도 나는 적어도 bilingual이다.

그렇다면 스승의 경상도 억양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글을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에 맞춰 다시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번역인 셈이다. 언어들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번역은 한국어와 영어처럼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한 언어의 방언들이나 다양한 변이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니까. '바꿔 말하면', '환언하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컨대'와 같은 어구들이 모두 번역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데, '번역(飜譯)은 반역(反逆)'이란 말대로 번역을 통할 때 소중한 무언가가 날아가 버린다. Robert Frost는 말하길, 번역을 통할 때 증발되고 마는 게 시라고 했다. (Poetry is what evaporates from all translations.) "스승의 사랑법"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그들 간의 특유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자기네의 친숙한 말로 대화할 것이다. 물론 이 시에서는 스승의 말만 드러나지만, 우리는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태도로 응답할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데, 둘 사이의 이 말하기 방식이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번역되면 그 특유의 느낌과 분위기, '시적인 것'은 증발되고 만다.

4. 주목해 볼 시의 세부 대목들

4행의 짧은 시에서 특별히 주목할 대목이 몇 군데 있다. 첫째, "주대야, 술 마이..."의 대목이다. 김주대 시인의 이름, 주대는 한자로 周大이다. 한데, 현 상황이 술자리이고 또 술 얘기가 오가는 만큼 周大는 酒大로 들린다. '대주가(大酒家)'나 '말술'이란 낱말들이 연관되어 떠오른다. 아마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술로 맺어진 것 같고 시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화제도 주로 술자리에서 나누는 것 같다. 술이 있어야만 둘 사이의 대화가 '술술' 풀리는 모양이다. 술은 둘 관계의 특유한 정체성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酒大는 周大의 별명처럼 들린다. 친한 사이에는 자기네끼리 통하는 별칭이나 별명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별명 말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나의 초중학교 시절 별명은 뻔데기였다. 내 이름, '번'이 뻔데기라는 별명으로 번져 나간 데는 그 시절 학교 앞에 뻔데기 장수들이 많았고 뻔데기는 우리의 헐하고 편한 간식거리였던 사정이 긴하게 개

입된다. 친구들은 그냥 그 소리의 연상/유사성을 따라, 즉 소리의 길을 따라 나를 뻔데기라고 불렀다. 그들이 내 이름의 한자(璠)와 그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시엔 나조차도 잘 몰랐을 텐데. 이제 번데기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지금도 그 시절의 친구들은 나를 '뻔'이라 부른다. 그 시절 이후로 관계를 맺게 된 친구와 지인이 나를 뻔이라고 부르는 법은 없다. 아니,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고려대로 간 철학과의 이찬 선생이 나를 '뻔이 형'으로 부르곤 했다. 하여튼, '뻔'은 '그때 거기'에 매여 있다. 이 시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술 마이"로 맺어져 있듯이.

다음으로 살필 대목은 시의 맨 끝말 '바다라'이다. 이 시에서는 스승의 경상도 억양이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었다고 했지만, 다른 낱말들과 달리 '바다라'는 두 겹의 소리로 들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곳들에서는 다른 소리의 간섭 혹은 겹침을 느낄 여지가 없어도, "바다라"에선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바다라'로 소리 날 수 있는 낱말 혹은 어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아라'와 '바다라'이다. 이때 '바다라'의 바다는 '海'로 읽힌다. 그러니까 "자 한잔 바다라"에서 우리는 한잔이 바다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소주잔으로 짐작해도 좋을 작은 잔이 마법처럼 드넓은 바다로 화한다. 내가 처음에 이 시 읽기에 실패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나는 '바다라'를 '받아라'를 희한하고 엉뚱하게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이 시가 소리의 길을 따라 흐르고 조직된다는 것을 알고서야 '바다라'를 표기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걸 깨쳤다. 나의 그런 실패는 우리의 문법 강박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게 읽을 때 시의 제목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스승의 사랑법"이란 제목은 좀 어색하게 들린다. 얼핏 무슨 논문의 제목 같은 관념성, 추상성이 껴 묻힌 것 같다. 그냥 '스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말이다. '사랑법'이란 사랑하는 방법 또는 방식을 뜻한다. 왜 굳이 방법/방식을 표나게 드러냈을까? 나의 해석으로는, 스승의 4행밖에 안 되는 경상도 억양의 말소리에 '술 마이(酒大)'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럼, "술 마이 먹찌 마라라 제발"이라고 말해 놓고 약간의 짬을 두고 "자아, 한잔 바다라"라고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논리적 모순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사학과에서 봉직하다 퇴임하신 김용선 선생님께서 제가 이 발표에서 다룰 "스승의 사랑법"이란 시를 보시고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서 이메일로 제게 보내셨는데,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80년대 초, 제가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사학과에 선배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산 토박이에 그 동네 특유의 풍류도 나름 즐길 줄 아는

멋진 분이었는데, 당연히 술이 빠질 수가 없지요. 아마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지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자주 화제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학과 회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며칠 전에 겪은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과 의사인 고교 동창을 찾아가 진료와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왈, '당분간 술을 마시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그 의사 친구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가 술을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니, 낮에는 나에게 술 마시지 마라고 해놓고 지금은 어째서 술을 마시라 하노?'라고 타박하듯 말하자, 그 의사 친구가 말하기를, '낮에는 내가 의사로서 말한 거고, 지금은 친구로서 권하는 거 아이가'라고 했답니다. 그 일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 의사야말로 천하의 명의이고, 두 분은 진짜 친구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사랑법"에 나오는 '주대'라는 분과 그 스승도 제가 겪은 마산의 그분들과 비슷한 경지에 거하는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 이 시에는 스승의 말만 담겨 있다고 했다. 즉, 주대의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데, 첫 3행에서 제자의 건강을 안타까워하는 스승의 말을 들은 '술 마이'의 반응은 어땠을까? 스승에게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몸 둘 바를 모른 채 온몸이 오그라들고 마음은 온통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그런 '술 마이'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스승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스승은 이때까지 혼자서만 술을 마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거리꼈을 수도 있겠다. 스승이 제자의 술병에 일조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렇게 쭈그러든 제자의 몸과 마음을 본 스승의 마음은 "술 마이 먹찌" 말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타까웠을 것이란 게 나의 해석이다. 그런 '술 마이'의 마음을 스승이 어떻게 풀어주겠는가? 한잔 줄밖에. 그 한잔을 받은 '술 마이'의 표정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각자의 짐작에 맡기겠다. 나는 그의 표정을 'Thirsty Monk'의 표정이라고 상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은 "자아, 한잔 바다라"의 결행(結行)이다. 이 문장에서 어떤 소리의 특성이 느껴지는가? 내가 보기로는, 일곱 자 모두에 'ㅏ' 모음이 들어간 게 눈길을 확 끈다. ('귓길'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래아 한글'이 바로 빨간 줄을 확 긋는다. '놈'에게 자꾸만 대들 순 없다. 그래도 도움 될 때가 더 많으니까.) 'ㅏ' 모음은 모음 가운데서 입이 가장 크고 둥글게 벌어지는 소리이다. 한잔이 바다(海)로 확대되는 시각의 변화에 청각 차원의 일곱 개 'ㅏ' 모음이 절묘하게 조응한다. 잇따른 일곱 개의 'ㅏ' 모음은 우연일까? 가령, "자아, 한잔 바다라" 대신에 '자아, 한잔 마셔라'나 '자아, 한잔 들어'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 시에선 '시적인 것'은 증발된다. "자 한잔 바다라"는 달리 대체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다.

시인이 달리 대체될 수 없는 필연의 한마디 말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사랑 또한 그렇지 않을까. 周大가 酒大('술 마이')로 된 것은 둘의 관계가 맺어질 무렵의 우연이었겠지만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을 이 시의 시점에서 두 사람이 술을 주고받는 관계는 필연으로 화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시인 이성복은 시란 "작품의 짜임새를 통해 인생의 구조 드러내기"라고 말했는데, 나는 첫 3행에서 마지막 행으로 넘어가는 숨결의 짜임새를 통해 사랑의 구조가, 더 나아가 인생의 구조가 드러난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김용선 선생님의 그 일화에 대한 촌평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점을 통기신 것으로 이해된다.

5. "스승의 사랑법"은 누구의 시일까?

이 시는 제자가 스승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문자언어로 옮긴 것이다. 구술사(口述史) 하는 양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 문자언어로 옮겨 적으면 그렇게 옮겨진 글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따옴표를 치고 누구의 말인지를 표시할 것이다. 주인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옮겨 적은 글을 자기 것이라고 할 리는 만무하다. 한데, 우리의 '술 마이'는 버젓이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 혹시 표절이나 도용 아닐까?

"스승의 사랑법"이란 제목의 소유권은 제자에게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그럼, 시의 본문은? 아마도 그 술자리에서 스승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을 텐데, 딱 이 부분만을 따온 것도 제자의 눈 밝은 선구안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인정해야 할 요점은 스승의 목소리를 글로 옮기면서 최대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 이것은 이 시의 결정적인 조직 원리이자 비시(非詩)가 될 것을 시(詩)로 들어 올린 것인 만큼 크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시를 김주대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여지는 아주 크다고 하겠다. 한 번 더 이성복 시인의 말에 기대어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말이 사람을 부린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진실인 것 같다. 말은 자체의 원리와 동력에 따라 저절로 작동한다. 물론 사람의 입과 손을 빌리지만 말이다. 시인이란 말에 실려 가면서 말의 작동 양상과 흐름을 남달리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아닐까 싶다. 망원경으로 은하계의 억만의 별들을 관찰하여 그 운행 법칙을 계산해 내는 천문학자처럼.

"스승의 사랑법"은 누구나 말하거나 들을 수 있고 또 자주 그랬음직한 말, "자아, 한잔 바다라"에 우리가 시의 맹아가 도사려 있음을 깨우쳐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인됨의 가능성을 망각한 되다 만 시인, 자신의 시적 잠재력을 사장(死藏)하는 눈먼 시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 속에 시가 혹은 시적인 것이 발견의 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퉁겨 준 점에서 김주대는 귀 밝은 그래서 좋은 시인이다. 오는 음력 대보름엔 귀밝이술이라도 많이 마셔 볼까나.

그러면 스승은 자신의 그 한 토막의 말이 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을까? 아닐 거다. 스승은 자신의 그 말 토막에 "스승의 사랑법"이란 제목이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 했을 것이다. 아니, 자신의 그 말 토막에 사랑이 담긴 것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야 맞다. 그렇지 않다면 남사스러운 일일 테니까. 요즘에야 꼭 그렇진 않지만, 사랑시에는 '사랑'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는 불문율 비슷한 것이 있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비길 수 있을까. 어쨌든 나는 그 말을 사랑을 사랑 아닌 어떤 것에 슬쩍 돌려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인지, 스승은 술 얘기만 했고, 술이 사랑의 은유일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을 게다. 사랑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제대로 된 사랑일 수 있으니까. 스승의 술 얘기에서 사랑의 마음결을 포착하는 건 제자의 몫이다. 아마 제자도 술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결을 짚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스승을 바래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나 사나흘 뒤에 그 말이 문득 다시 떠올랐을 때 찬찬히 그 말을 혀로 굴려 보며 음미했을 때야 마음에 짚이는 게 있었을 것이다.

6. 맺는말

한림대에서 30년 선생 노릇을 했다. 그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스승의 사랑법"에 대한 내 생각과도 연관될 법하게 뚜렷이 느껴지는 변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학생들의 말투 변화이다. 어림짐작으로 말하건대, 첫 10년쯤 동안 학생들의 말투는 다양했다. 말투에 여러 지방의 억양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서로 다른 말투로 개개의 학생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후의 20년은 말투의 다양성이 점차 흐려지고 사라져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적어도 지금의 나는 학생들을 말투로는 구별해서 인지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 표준말 일극 체제가 된 것 같다. 한림대에 오는 학생들의 지역 분포가 서울권과 강원권으로 협소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나는 말소리의 지역별 다양성이 졸아드는 이런 현상이 현금의 떠들썩한 지역 소멸 위기와도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말소리의 다양성이 스러져 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감각과 사고의 다양성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께

서 이야기한 일화 하나를 그대로 전하면서 어쭙잖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오래 살았는데 늘 분개한 것이 지방 방송 아나운서들이 서울말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방송이면, ”내일 비가 온다 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지방 방송 아나운서가 서울말을 쓰면 그 지방 말은 촌놈 말이 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은 늘 자기들이 변방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게 돼요. 언어란 결국 권력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일 예민하게 래디컬한 각도에서 이야기한 사상가가 일리치였어요.” (김종철, “일리치의 혹”,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95쪽)